

보기의 인쇄 레이아웃을 해제하시면 보다 편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私立コン・チェルト学院入学願書》



찬란한 햇살이 싱그러운 꽃들과 마주하는 시간



“그대는 어떤 색으로 빛나고 있나요?”

「아름드리 불어오는 봄바람과 자유를 노래하는 요정의 여왕」

외관



(@waka_cmc님의 커미션입니다.)

키 | 몸무게
165cm | 50kg

이름

Titania

티타니아 / チタニア / Titania

나이 | 학년

19세 | 3학년

성별

女

성격



Gentle 온유한

▶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 모든 색에는 빛이 담겨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대도 빛나고 있는 것이겠죠? ”

すべての色には光が入っているそうです。だからそなたも輝いているのでしょうか？

진잔한 새벽녘의 윤슬 위에 티끌 없는 이슬이 한 방울, 향기를 품은 꽃잎이 한 잎, 청아하게 지저귀던 종달새 한 마리가 머물다 갑니다. 그저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순간을 정지해 담아놓은 마냥 맑고 유한 웃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씨는 봄바람이 스미듯 부드럽고, 저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고결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봄의 산뜻한 향기가 어릿거리며 흘러나오는 것만 같아. 그는 따듯한 봄날의 문을 여는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붙었던 사람을 사르르 녹이는 듯한 분위기는 아마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따스함을 이끌어내는 무언의 힘이 있었고, 이는 곧 그의 행색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 하고픈 말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에, 하늘에 몸을 맡기고 유유자적 흘러가는 구름같이 그 얼굴을 쉽사리 붉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결을 따라 걷다 보면, 찬란히 만개하는 꽃처럼 환히 웃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저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친절함과 배려심을 지녔고, 상대방의 말에 따라 줄곧 호응해주는 따스한 면모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만만하게 볼 이는 존재할리 만무했으며,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나무랄 데 없이 부드러운 위로가 되었답니다.

티타니아님은 언제나 따뜻하신 분이랍니다.



Mystic 신비스러운

▶ 보기에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묘한 데가 있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여쁜 꽃님, 제 이름은 티타니아라고 한답니다.”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きれいな花様、私の名前はチタニアと言います。

자연의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 천연의 존재, 그에게는 늘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지나가던 길가의 들꽃들과 통성명을 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엉뚱하고, 누군가에게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천진난만한 그의 모습에 괜스레 다사로운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유한 바람이 부는 숲속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겉과 속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요정’ 혹은 ‘정령’이라는 수식어가 곧잘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일정 이상의 관계에 대해선 선을 긋거나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그의 뒷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학원을 온종일 수소문하여도 찾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비주의자’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가히 신비롭다 말할 수 있었죠.



Dreamlike 꿈결같은

▶ 꿈을 꾸는 어렵듯한 동안.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싸라기 마냥 날카로운 눈이 내리는 한겨울 속에서 온기 가득한 봄이 찾아온 듯, 백색의 꽃이 활짝 핀 듯, 화려한 나비가 날아오르듯 그의 존재는 한없이 비현실적이기만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티타니아'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나기엔 너무나 달콤한 꿈이기에, 그저 이 순간을 영원히 누리길 바랄 뿐입니다.

길을 찾아 덧없는 꿈을 헤매고 있다면, 따스했던 봄날을 떠올리세요. 이제 당신의 곁에는 남실바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 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당신의 바람이 되어, 그 길을 인도할 지어니.

“자, 함께 가시겠나요?”

さあ、いっしょに行きますか?

마치 환상적이고 달콤한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타



#1. Titania

중세 유럽의 여러 민담과 전설에 등장하는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 저는 요정이 되어 자유를 노래할 거예요.”

#1-1. 가명

사람들에게는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 밤의 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티타니아는 그가 가명으로 사용 중인 이름이며, 실제 이름은 학원 내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가 가명을 사용하게 된 이유 또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색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본명을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앞에서 있는 사람은 『티타니아』니까요.

#1-2. 외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햇살을 아우르는 빛과 아직 만개하지 못한 봄꽃의 열은 봉오리가 어우러져 신비하고 오묘한 색을 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듯 제 곁을 따라 가지런히 정리된 앞머리, 왼쪽으로 치우쳐 약간 봉

뜬 느낌의 개성이 느껴지는 옆머리, 제 허벅지를 가릴 정도의 길고 긴 웨이브 머리는 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의 도화지에 화려하게 그려진 오로라를 담은 듯하여, 보라색-파란색-하늘색으로 어우러진 특별한 색과 흰색의 어여쁜 나비 모양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색과 같은 속눈썹의 색깔과 둥글게 처진 눈썹은 그의 인상을 순해 보이게 합니다. 백옥같이 새하얀 피부의 눈 밑 언저리는 늘 선흥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정갈히 차려입은 교복은 제 몸에 딱 맞는 정도의 사이즈로, 넥타이에 장식된 사슴 모양의 은색 브로치가 인상적입니다. 무지갯빛 레이스는 본 교복을 리폼하여 허리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길고 넓게 빼어낸 뒷 천은 마치 날개가 달린 듯한 드레스를 연상시킵니다. 연한 감청색의 캣 가터는 오른쪽 허벅지 중간에 자리하였으며, 같은 색의 메리제인 슈즈는 아담한 발에 맞춰 마치 새 신인 마냥 광을 내고 있습니다.

#1-3. 말씨

- * 1인칭 | 저 _私(와타쿠시)
- * 2인칭 | 그대 _そなた(소나타)

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의 그가 사용하는 어투 역시 따스함과 친절함이 느껴집니다. 조곤조곤 동화책을 읽어주는 듯이 나긋한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1-4. 탄생

- * 혈액형 | O형
- * 별자리 | 양자리 (4.9)
- * 탄생색 | ■ 치자색(FCD770) : 유려한 동작
- * 탄생석 | 세라사이트(Cerasite) : 정신미 | 고결함
- * 탄생화 | 벚나무(Cherry Blossom) : 정신미 | 세심한 배려



#2. 꽃꽂이

화초나 나뭇가지를 꽃병이나 수반(水盥)에 꽂아 감상하는 일, 또는 그 기법(技法).

차분하고 유려한 손길은 꽃을 어루만지고, 그 손길에 꽃은 감춰두었던 제 빛을 발합니다. 이를 바라보자니 마치 꽃과 나비가 그려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만도 같아서, 우아하기 그지없는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아랑곳 않고 자연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의 표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꽃꽂이를 즐겨 하는 그입니다. 레슨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보통의 꽃꽂이 작업에는 필요 없는 가지나 잎을 잘라내고 다듬는 과정이 속해있으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그가 꽃을 장식하는 장소는 수반뿐만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면, 상대의 머리 위에 꽃발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제 손으로 하나하나 엮어낸 화관이라던가,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얹힌 머리 장식 혹은 작은 코르사주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 나뭇의 애정표현인 듯 보입니다.



#3. 꽃말

꽃의 특징과 성질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말.

매일 아침이 되면 오늘의 꽃과 그 의미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닐 정도로 학원 내 인기가 많습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에 불과하지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침을 여는 이들을 위한 오늘 하루의 덕담과 응원을 남기기도 합니다.

“X월 XX일, ‘추억’이라는 의미를 지닌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꽃을 소개할게요. 그대의 오늘이 크리스마스처럼 밝고 환한 불빛이 가득하길,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4. Like

자연과 관련된 것이라면 서슴없이 제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강렬하게 빛나는 태양도, 밝아오는 푸르른 하늘도,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 하며, 아침을 노래하는 숲속의 작은 새들, 잔잔한 샘물에 목을 축이러 온 동물의 발걸음 소리까지도 모두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이야가오카의 꽃발을 참 좋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따스한 색채의 조화가 제 감정마저도 따사롭게 만들어주는 장소, 그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꽃밭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비와 함께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찌나 빨리 해가 저물어 가던지, 마냥 즐겁기만 해 보입니다.

#5. Hate

무언가 깊게 얽매이는 것과 간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의 불화, 불합리한 규칙,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삶,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이야기. 그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이었기에, 틀에 박힌 관습은 그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모든 규칙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져야 할 질서의 행위는 이뤄야 하니까요. 자연에도 섭리라는 규범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6. Unit

#6-1. EororA

에오로라의 그들은 새벽 여명,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엄한 그 무대를 보았을 때, 벅차오르던 감정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의 난연함을, 그들의 염원을, 그리고 광명을. 신비주의란 일체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활동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 MadMagic

매드 매직의 그들은 마치 강렬한 여름의 태양처럼, 한낮의 햇볕은 발광하며 모두의 마음속에 여열을 남깁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그 자유로움을 발산해내는 모습에 저 자신으로선 그들의 자유에 대한 소정의 동경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부숴버리면 자연에도 피해가 되니까요. 재활용은 잘 하고 있는 것이겠죠? (웃음)

#6-3. 淸巔

청량의 그들은 혼황의 땅거미가 진 어둠 속, 어스레함을 비추는 황혼의 존재였습니다. 클라로스의 무대가 자연의 정령들로 천연하고 있다면, 청량은 오방의 신수들이 그 무대를 아우르죠. 넓은 그릇을 지녀 완벽한 그들의 실력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붉은 조명이 푸르게 변할 즈음이면, 무대의 끝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선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6-4. FANTASIA

판타시아의 그들은 모두의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찬 퍼레이드로 밤을 환하디 환하게 비춰줍니다. 통통 튀는 일렉트로닉한 음악에 갠스레 마음이 들뜨고는 해요. 그들의 유니콘 키링 정도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공연은 어떠할지,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동심의 즐거움을 잔뜩 만끽할 수 있겠죠?

#6-5. Edel Quartz

에델 퀴츠의 그들은 고요하고 깊은 새벽의 분위기를 나타낸 서정적인 달빛이었습니다, 빛의 비단이 하늘을 가득 메우면, 숨 막히는 보석들의 찬란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들의 무대는 신성한 전당, 음악의 모든 존재들에게 경의를 표해야만 할 것 같아요. 눈과 귀, 그리고 마음 모두가 풍족한 공연이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퍼스널 컬러



#FF9CD4 #FFE599

선관

X

유닛



싱그러운 아침, 요정의 여왕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Claros

무대의 막이 오르면, 아침을 깨울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클라로스로서의 무대 위, 날갯짓을 시작한 요정이 자유를 찾아 날아오릅니다.

“자, 함께 정령의 세계로 떠날 준비는 되셨나요?”

맑고 투명한 이슬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호수 위로 찬연합니다. 떠오르는 햇살의 빛이 비치어 반짝이는 윤슬과 물비늘이 경이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시간. 포롱거리는 새의 울음소리가 고요했던 정적을 깨고 널리 울려 퍼집니다. 시나브로, 숲속의 동물과 식물들이 아침을 맞이하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려 합니다. 아스라이 들려오는 신비로운 음색, 그것은 싱그러운 새의 지저귀도, 가련한 꽃사슴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린 듯 아름다운 날개를 펼친 정령들이 도란도란 모여서는 자연을 노래하고 춤추며, 당신을 정령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 클라로스의 리더인 그는 요정의 여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닛 내 정령들을 이끌어냅니다.

두명하게 늘어져 가벼이, 잇따라 흔들리던 유닛복의 천은 어루어 쓰담아주는 실바람의 손길만치 억세지 아니하고 따스합니다. 상냥하고 향기로운 그의 영창은 무대를 빛내며,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객의 앞에 펼쳐질 것은 공상에 의한 비현실적인, 하지만 청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을 정령들의 이야기입니다.

백조는 해가 저문 호숫가에서도 유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스스로 날갯짓하는 방법을 깨달았기에, 그동안 품어왔던 자신의 자유를 아낌없이 표출하려는 날개의 움직임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명성을 위한 긴장감조차 자연의 일부라고 느끼려 하며, 생명력 가득한 노래로 숲속의 꽃을 수려히 피워냅니다.



동아리

◆ 산림생태관찰부 ◆

자연을 사랑하는 그는 관찰부로서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야가오카 산의 지리라면 모두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한창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근래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은 없는지, 많이 쌓인 눈이 미끄러져 내릴만한 장소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며 산의 동식물들이 안전한 겨울나기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부지 안에서 자연의 섭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선불리 손을 대는 것보다는 시간을 경과하여 지켜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숙사



•
•
•



#0. 花偲夢 惠利華

하나사쿠라 에리카 | 花偲夢 惠利華 | Hanasakura Erika

꽃 화, 굳셀 시, 꿈 몽 | 은혜 혜, 이로울 리, 빛날 화

花偲夢 家の 장녀, 세간에서 '류큐'라는 이름을 지닌 일본 무용의 전통을 내려오고 있는 유명한 가문입니다. 대대로 부유하여, 모자랄 것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본가에서는 예를 엄격하게 중시하였기에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그 무엇 하나 편히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타고나기를 예술적인 사람인 그는 전통 무용에도 재능을 보였으나, 엄격한 집안과 더불어 혹독했던 레슨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꽃꽂이에 재주를 보인 것은, 가문에서 예와 무용의 기반으로 꽃꽂이 예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평소 꽃을 좋아했던 그이기에 이를 취미로 삼고는 했습니다만, 화기(花器)에 담겨 장식된 화초와 나뭇가지가 가문의 전통에 의해 장식되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여길 즈음에는 저를 옥죄어오는 가문에서 벗어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곳, 사립 콘·체르트to 학원입니다.

가문의 전통 무용에서 벗어난 그가 구태여 아이들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득,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무대 위에 서고 싶다는 바람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서왔던 무대는 보여주기식의 인형극이나 다름 없었으니. 그래요, 마치 저 끝을 알 수 없는 자연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꽃을 가득 피워내고, 동식물들과 함께 웃으며 소통하고, 자신이 자연 속에서 무엇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무대를 꿈꾸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제 이름에 남아있던 가문의 흔적을 잠시 묻어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 『티타니아』라는 요정 여왕의 이름으로, 클라로스의 일원으로, '자연' 속에서 '자유'를 노래해왔고, 노래하고 있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달아, 굳센 꽃이 되어 꿈을 꾸렴. 끝내 너라는 은혜는 이롭게 빛날지어니.

